

##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손신영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hin-Young, Soh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develop health education program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6th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social withdrawal, self-esteem,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parental support.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Depression, Health educati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

접수일 : 2019년 10월 31일, 수정일 : 2019년 11월 21일, 채택일 : 2019년 11월 29일

교신저자 : 손신영(3842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Tel: 053-600-5663, Fax: 053-600-5679, E-mail: [ngel6484@naver.com](mailto:ngel6484@naver.com)

## I. 서론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2017년 15,945명에서 2018년 18,068명, 고등학생은 2017년 10,334명에서 2018년 10,668명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실질적으로 미비하며 다문화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따돌림, 학업부진, 언어능력부족, 정서적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박근영 등, 2013).

다문화 청소년은 서툰 한국어로 인한 부모들로 인해 언어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남과 다른 외모의 차이와 이중문화 경험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소수집단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및 사회 적응의 문제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며,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같은 폭력피해 경험, 정체성의 혼란 및 소외감의 경험 등 많은 심리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김석준, 2015).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이중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의 혼란으로, 언어능력 및 기초 학습 능력이 또래들에 비해 부족함으로 학교 부적응 한국사회의 타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김정민 등, 2015). 또한 학교에서 교사 및 또래 친구로부터 관계형성의 어려움 및 차별과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우울과 자살생각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전경숙과 송민경, 2011)

청소년기 우울은 학교생활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비행·자살 등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오승환, 2016),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우울은 성인의 우울과 다르게 우울이 나타나지 않고, 비행 행동이나 신체적 증상 호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

이 어렵다. 특히 신체적, 심리적 변화 크게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주변여건과 심리·정서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올바른 자아정체감 확립에 영향을 줄 소지가 크며, 이를 방지할 경우 자살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유진영, 2011).

청소년기가 갖는 발달상의 여러 가지 특징과 다문화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 및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 가정의 일반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2016, 모상현, 2018, 오승환, 2016).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 우울은 자아존중감(신예진, 2017)이 감소할수록 증가하였고, 사회적 위축(박병선 등, 2017)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였다. 다문화 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유명란 등, 2013)는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사회 문화적 적응에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적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주 등, 2017).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의 원인이 되며 가정 내에서의 부모지지 뿐 아니라 가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학교내에서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지현 등, 2013).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우울의 영향요인들을 다루고 있으나, 우울에 대한 단편적인 영향요인을 다루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 우울은 개인요인, 다문화 요인, 환경요인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다

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연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6차년도 데이터에 대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시자료를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동의하에 활용하였다. MAPS 패널구축은 2011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패널로 1차 본 조사를 시작하여 1년 주기로 조사되는 종단 연구이다. 연구에 사용된 6차년도 조사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며, 1차년도에 구축된 패널들에 대해 개인별 추적을 통해 전문 조사원에 의해 가구별 면접 조사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포함하였으나, 실제 모집단 분포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조사된 2016년의 6차년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1,242명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의미한다(이영예와 안권순, 2013). 사용된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1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35이었다.

#### 2) 사회적 위축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사회적 위축 측정도구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사회적 위축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자신이 직면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하는 특성(이봉주 등, 2014)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점이 총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8이었다.

#### 3) 이중문화수용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이용된 이중문화수용 측정도구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이중문화수용은 부모의 외국문화와 한국문화 이 두 가지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이영주 등, 2017). 측정도

구의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40점이 총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 수용이 높았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49이었다.

#### 4)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이용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질적인 개인 및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모상현, 2018)을 의미한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각 문항이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44이었다.

#### 5) 사회적지지

##### (1) 부모지지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의 측정도구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되며, 의사소통 관계망 속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환원과정을 통해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적 집합체(모상현, 2018)이며, 그 중 부모지지는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총점은 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지지가 높았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0이었다.

##### (2) 친구지지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에 사용 측정도구는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친구지지는 친구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5점이 총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9이었다.

##### (3) 교사지지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의 측정도구는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교사지지는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았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0이었다.

#### 6) 우울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지의 측정도구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우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낌을 의미한다(신예진, 2017).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았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5이었다.

### 3.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자료를 SPSS Versio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이중문화 수용, 문화 적

응 스트레스,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변수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을 위해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42 persons

Variables	Categories	N(%)	Mean $\pm$ S.D	t/F	$p$
Gender	Male	609(49.0)	16.5 $\pm$ 5.2	-3.875	<.001
	Female	633(51.0)	17.7 $\pm$ 5.4		
Age	14	94(7.6)	17.7 $\pm$ 5.4	2.576	.036
	15	1,102(88.7)	17.0 $\pm$ 5.3		
	16	41(3.3)	19.4 $\pm$ 5.2		
	17	4(0.3)	19.0 $\pm$ 4.8		
	18	1(0.1)	10		
Country of mother	Korea	41(3.3)	17.0 $\pm$ 4.3	1.424	.224
	China	308(24.8)	17.3 $\pm$ 5.4		
	South-East Asia	387(31.2)	16.6 $\pm$ 5.4		
	Japan	448(36.0)	17.1 $\pm$ 5.2		
	Others	58(4.1)	17.1 $\pm$ 5.4		
Country of father	Korea	1,197(98.4)	17.1 $\pm$ 5.4	0.671	.612
	China	3(0.2)	20.0 $\pm$ 6.2		
	South-East Asia	8(0.6)	15.3 $\pm$ 5.9		
	Japan	17(1.4)	18.2 $\pm$ 3.7		
	Others	17(1.4)	16.7 $\pm$ 4.3		

Variables	Categories	N(%)	Mean ± S.D	t/F	p
Communication language between adolescent and parents	Only Korean language	863(69.5)	16.9 ± 5.3	2.466	.085
	Korean language with foreign language	376(30.3)	17.5 ± 5.5		
	Only foreign language	3(0.2)	13.3 ± 2.5		
Communication language between parents	Only Korean language	1,063(85.6)	17.1 ± 5.4	0.285	.752
	Korean language with foreign language	174(14.0)	17.2 ± 5.4		
	Only foreign language	5(0.4)	15.4 ± 3.6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51.0%로 높았고, 성별에 따른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5세의 비율이 88.7%로 가장 높았고, 14세에서 29세의 비율이 7.66%이었다. 연령에 따른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 국가의 비율은 일본이 36.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동남아가 31.2%였다. 어머니가 한국인의 비율은 3.3%로 가장 낮았고, 아버지가 한국인의 비율은 98.4%로 가장 높았다. 부모의 국적에 따른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님과 의사소통 하는 언어는 한국어로만 이루어지는 비율이 69.5%로 가장 높았고, 부모간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한국어로만 이

루지는 비율이 85.6%이었다.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른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변수의 평균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평균 17.1±5.4점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12.6±2.2점이었고, 사회적 위축 정도는 11.6±3.6점이었다. 이중문화 수용은 29.3±3.9점,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14.1±3.2점이었다. 부모지지는 19.2±2.9점, 친구지지는 12.1±2.4, 교사 지지는 11.6±3.6점이었다.

〈Table 2〉 Mean of Variables

Variables	Mean ± S.D	Range
Self -esteem	12.6 ± 2.2	4 ~ 16
Social withdrawal	11.6 ± 3.6	5 ~ 20
Bicultural Acceptance	29.3 ± 3.9	10 ~ 40
Cultural adaptation stress	14.1 ± 3.2	10 ~ 32
Parental support	19.2 ± 2.9	6 ~ 24
Peer support	12.1 ± 2.4	3 ~ 15
Teacher support	11.6 ± 2.4	3 ~ 15
Depression	17.1 ± 5.4	10~40

### 3.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우울은 자아존중감( $r=-.445, p<.001$ ), 이중문화수용( $r=-.208, p<.001$ ), 부모지지( $r=-.337, p<.001$ ), 친구지지( $r=-.353, p<.001$ ), 교사지지( $r=-.264,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자아존

중감, 이중문화수용,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r=.507, p<.001$ ), 문화적응 스트레스( $r=.315,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사회적 위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s	Depression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Bicultural Acceptance	Cultural adaptation stress	Parental support	Peer support	Teacher support
Depression	1							
Self-esteem	-.445***	1						
Social withdrawal	.507***	-.339***	1					
Bicultural Acceptance	-.208***	.428***	-.122***	1				
Cultural adaptation stress	.315**	-.233***	.159***	-.164***	1			
Parental support	-.337***	.456***	-.219***	.417***	-.217***	1		
Peer support	-.353***	.542***	-.268***	.371***	-.275***	.442***	1	
Teacher support	-.264***	.446***	-.182***	.293***	-.199***	.400***	.596***	1

\* $p<.05$ , \*\* $p<.01$ , \*\*\* $p<.001$

### 4.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어머니국가, 아버지국가,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언어, 부모간 의사소통하는 언어였고, 연령을 제외하고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이중문화수용,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 지지를 투입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독립 변인간 공차한계(tolerance)가 0.706-0.980로 0.1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97- 1.417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었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위축( $\beta=.374, p<.001$ ), 자아존중감( $\beta=-.198, p<.001$ ), 문화적응 스트레스( $\beta=.187, p<.001$ ), 부모지지( $\beta=-.174, p<.001$ )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우울이 0.374배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0.198배 감소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0.187배 증가하였고,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0.174배 감소하였다. 사회적 위축이 대상자의 우울에 가장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성별( $\beta=.108$ ,  $p<.001$ ), 부모님과 의사소통하는 언어( $\beta=.068$ ,  $p=.008$ )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인 경우 우울이 높았고, 부모님과 한국어로만 말하는 것보다 외국어와 같이 말하는 경우 우

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선형회귀분석한 결과 우울에 관한 예측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 $F=48.934$ ,  $p<.001$ ). 설명력은 42.2%였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Depression on Selected Variables

Variables		B	$\beta$	$p$
	Gender	1.070	.105	<.001
	Age	.125	.008	.705
	D1	1.612	.130	.494
	D2	.369	.032	.875
	D3	.986	.088	.675
	D4	1.639	.065	.491
Control variable	D1	2.470	.023	.387
	D2	.471	.007	.837
	D3	1.116	.024	.663
	D4	1.107	.023	.658
	D1	.787	.068	.008
	D2	-3.018	-.028	.206
	D1	-.016	-.001	.966
	D2	-1.039	-.012	.588
Independent variable	Social withdrawal	.543	.374	<.001
	Self -esteem	-.480	-.198	<.001
	Cultural adaptation stress	.348	.187	<.001
	Parental support	-.319	-.174	<.001
R <sup>2</sup>		.422		
Revised R <sup>2</sup>		.413		
F		48.934		
P		<.001		



#### IV.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은 일반적 특성인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어머니 국가, 아버지 국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다문화 청소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지지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신예진, 2017).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 타인에 대한 인식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문화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동료와의 관계형성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하며,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문화 청소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박병선 등, 2017). 사회적 위축은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위축되게 되어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이순희, 허만세, 2018).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위 친구들과의 외모로 인한 차별, 문화적 소외감 등의 이유로 심한 사회적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다(모상현, 2018). 이로 인해 사회

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경험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을 접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이고, 적절한 대인관계 형성이나 유지에 어려움을 야기되며 이러한 위축감은 내재화 될 경우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스스로 고립시키게 된다(이래혁, 장혜림, 2017).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유명란 등, 2013)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질적인 개인 및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순혈주의 전통이 강하고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심할 수 있으며, 차별과 같은 부적절한 경험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동일 문화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 할 경우 보다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모상현, 2018). 청소년들이 문화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친구나 교사와의 학업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학교 생활적응에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기순과 신선순, 2011). 그러므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부모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최정아와 이혜은, 2008)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중재는 학교나 지역사회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지지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과 지원이 요구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 향상을 위한 중재로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부모가 자녀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부모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써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이중문화 수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투입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문화 적응 스트레스, 부모지지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같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다문화 요인, 부모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불구하고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존재하므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의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 우울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우울 예방을 위한 교육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교사 교육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우울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지지, 자아존중감과 부모지지가 낮고, 사회적 위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이 높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다문화 관련 요인, 환경 요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우울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개입이 다문화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사업에서 포함되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 우울의 예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규명된 영향요인들을 기초로 중재 프로그램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정 및 개인 관련 변인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119-143.
2. 김기순, 신선순.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융합연구, 9(3), 97-114.
3. 김민경. (2016).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과 가족탄력성 및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계에 대한

-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1), 205-210.
4.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연구, 58(3), 6-41.
  5. 김정민 외 8명. (2015).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4), 279-287.
  6.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 및 또래친구 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4, 64-98.
  7. 박근영, 최유리, 김보라.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1), 155-165.
  8.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
  9. 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10. 신예진.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1. 오승환.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12. 유명란 외 8명. (2013).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3), 320-329.
  13. 유진영. (2011). 고교 청소년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4), 81-93.
  14. 이래혁, 장혜림.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폭력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 행복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3), 109-132.
  15. 이봉주, 민원홍, 김정.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16.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347-372.
  17. 이순희, 허만세. (2018).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 비행경험 유무의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4), 251-289.
  18. 이영예, 안권순. (2013). 자아존중감과 성격 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1), 257-281.
  19. 전경숙, 송민경.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8(11), 305 - 330.
  20. 최정아, 이해은. (2008).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아통제력 및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1), 295-326.
  21. 통계청. (2019). 2019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제1~6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